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3월 31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행27장 21절-26절

설교제목 :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해서, 결코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에 수렁에 빠져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21절) 이러한 지적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옳았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이 후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22절)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와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안심하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23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에서 ‘사자’로 번역된 ‘앙겔로스’는 ‘천사’를 뜻합니다. 결국 23절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바울이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망적인 수렁에 빠진 자들을 향해, 남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약5:13) 그렇다면, 왜 절망의 수렁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빌4:6-7에 의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는 삶에서 부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는 풍랑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고요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고요한 바다와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이 문제라기보다는 염려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에 복음을 전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케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비록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 있지만,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다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만 하고 남탓만 하면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죽지만, 기도하면, 자신도 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27:37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전부 276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24절) 24절에서 ‘주셨다’로 번역된 ‘카리조마이’는 ‘선물’,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유래한 동사로써, ‘값을 받지 않고 거주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값을 받지 않고 거져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의 로마행은 **아드라뭇데노라**는 지역에서 만든 배를 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행27:2) 그리고 바울

의 일행은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행27:5-6). 그런데 만일 이 배가 무라시에서 바울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이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라시에서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75명의 생명마저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24절 본문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문에는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 ‘이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보라(이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그 실제로 자신들의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임을 예견하였습니다.(25-26절)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세상에 표류하는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이지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롬8:31-32) 따라서,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롬 8:36-37) 혹시, 절망 가운데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원망과 남 탓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절망적인 상황에서 탓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배에 승선한 275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교회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분쟁이 생기는 것은 원망과 남 탓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남 탓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죽입니다. 그러나 대신 기도하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어느 유형에 속한 자들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